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배신하는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느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아시고도 가시는 그 마음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에 쪼들린 사람들, 나라 잃은 서러움에 지친 사람들, 기득권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환상을 충족하기에 걸맞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기쁨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팔마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장면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리아밖에 없습니다.”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왕으로 모시겠다고 호산나!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이라고 외칩니다.

배신입니다. 어떻게 이리도 빨리 배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와 단식이 끝났을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갖 유혹을 펼치지만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자 다음 기회를 보며 떠나갔던 그 사탄이 사람들 안에 다시 찾아와 음흉한 흥계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인간의 배신에 대한, 또한 사탄의 세력에 의한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날이며 예수님의 삶과 생명이 끝장이 난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마치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느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배신하고 사탄의 세력에 협력하지만 하느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오히려 배신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삶이고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되돌릴 수 없이 나아가기만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불행하다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간은 성주간입니다.

배신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유다도 스승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주간 동안 지금까지의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를 통한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해봅시다.



허철수 미카엘 신부 | 복신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50,4-7
화 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 서	필리 2,6-11
복 음	루카 22,14-23,56 또는 23,1-49

관상은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이 아닙니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관상에 대한 그릇된 개념 중의 하나는 관상을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으로 여기는 것이다. 초기 사막 교부들에게 신비주의(Mysticism)와 관상은 직접적인 하느님 체험을 다르게 표현한 두 용어였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와 신비신학은 점점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 같은 신비가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 갔고, 심지어 『가르멜의 산길』이나 『완덕의 길』과 같은 그들의 저서들은 영적인 삶의 단계를 상승하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안내서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관상에 관한 생각은 모호해지거나 잊혔으며 신비주의는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를 피해야 하며 누군가 이런 체험을 하면 그 신앙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머튼은 단호하게 주장한다. “관상은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포한 힘에 의해 ‘점령된’ 감각적인 광신도 아니요, 신비적 광란에 의해 자유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새명상의 씨』) 이교도의 신비적 종파들과 원시적이고 밀교적 전례들이 주는 신비주의에 대한 부정적 암시는 현대에 와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사실 신비주의나 관상은 같은 것이며,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이는 하느님과의 일치 체험이며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과의 일치 체험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는 부득이하게 언어와 개념, 이미지 등 매개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친교(communion)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매체가 불필요해진다. 언어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다. 마침내 하느님의 영(靈)이 사람 안에 직접 내재하여 활동하실 때에는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상상은 하느님과의 ‘침묵의 일치’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기에 이른다. 더욱이 인간의 언어와 개념 등은 하느님이 인간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하고 활동하시려는 자유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관상은 이러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깊이 들어간 관상가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모두 침묵시키고 단순히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관상을 통하여 하느님과 친밀한 친교를 체험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존재가 본질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도달해야 할 ‘대상’이나 ‘목적’이라기보다는 ‘삶의 주제요, 내용이며 생명의 원리’가 되기에 이른다.

나아가 이제는 관상적 삶의 여정에서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느님 체험에 도달하려는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관상에서 오는 고요함과 평온 역시 하느님이 아니기에 영적 집착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관상을 통해 무엇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기에 일상의 소소한 것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 자신을 하느님께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겸손하고 순수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깊은 관상의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에 도달하게 된 영혼은 자신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워 주는 뜻밖의 은총의 선물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리고 항구히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는 것이다.

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도달해야 할 삶 자체, 즉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은 사람 가운데 “저는 결코 낙원에서 하느님을 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하느님을 뵈고 그분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아담이 있었던 인간 본래의 자리인 낙원에서 하느님과의 참된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관상이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머튼은 『새 명상의 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의 목적에 다다른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서 관상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많은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초자연적 영역으로 들어가 새로운 환경을 맞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별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새 아담, 그리스도의 목숨 바친 자기희생적 사랑은 우리도 관상을 통해 새 아담이 되어 낙원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런데 이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모든 외적인 허물을 다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나는 하느님과 함께 별거벗고 에덴동산에서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산 지오반니 로톤도

유시연 레아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이태리 동부 시골마을, 산 지오반니 로톤도까지 오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다. 여행 중에 만난 신부님 말을 듣고 용감하게 초행길에 나선다. 기차 두 번 갈아타고 3시간여, 다시 시외버스로 1시간여 오면서 농촌 풍경을 바라본다. 초록빛 넓은 목초지, 끝없이 펼쳐진 밀밭... 버스는 평야를 지나 높은 언덕을 끝없이 오른다. 로톤도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녁 6시 넘어 중국인 식당을 갔더니 초밥, 사시미, 미소된장국, 탕수육 등 퓨전요리와 찐 밥 메뉴가 있다. 찐밥과 미소된장국, 탕수육, 연어샐러드를 먹고 거리에 나선다. 가로등과 상점의 불이 켜지는 저녁의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예수의 다섯 상처를 받은 카푸친수도회 비오 신부가 생전에 머무르며 많은 기적을 보여준 이곳은 그의 생전이나 사후에 순례자들이 찾아온다.

비오 신부는 50년 동안 오상(다섯 상처)을 안고 살다가 68년 안식에 든다. 사후 40년이 지나 그분의 관을 여니 육신이 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제대 뒤 지하성당 벽에 흠을 파고 유리관 안에 시신을 넣어 보관하고 있다. 비오 신부는 성인품에 올라 수많은 신자들의 영적 존재로 남아 있지만 살아 있을 적에는 예수의 오상이 영광과 고통이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처신, 그를 바라보는 형제 수사들의 시선, 물려오는 병자와 순례자들... 얼마나 압박을 받는 입장이었을까.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살았다고 비오 신부는 고백한다. 아시시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시라면 이곳은 비오 신부의 도시다. 성당, 수도원, 상점, 시청, 광장, 거리, 골목의 담장, 가정집 할 것 없이 비오 신부의 조각과 초상화, 사진, 부조가 있다. 이곳의 농촌마을 골목을 걷는다. 뒷골목 주택 담장 너머로 무화과 열매가 많이도 매달렸다. 개복숭아, 오렌지, 능금이 익어간다.

아시시 수녀원에서 만난 미카엘 신부는 잇을 만 하면 어디어디를 가보세요, 하고 카톡으로 소식을 전한다. 산 몬테 산탄젤로는 로톤도에서 21km 떨어진 이태리 남동부 해안에 접한 천혜의 요새다. 바다가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 도시, 달력에 나옴직한 예쁜 마을이다. 미카엘 대천사가 3번이나 발현했다는 그곳, 지하동굴 성당에는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미사가 이어졌으며 성체 현시를 해놓았고 또 다른 굴에서는 고해성사실 두세 곳에 불이 켜져 있다. 성체 현시를 한 제대 앞에는 투명 유리그릇에 담긴 십자가 보였고 촛불이 고요히 타고 있다. 바람도 인적도 없는 제대 앞, 소리 없이 타는 촛불을 무연히 바라본다. 길 위의 나날을 보내는 사이 봄꽃이 지고 연록빛 그늘이 깊어졌다.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는 비오 신부의 유해

낮 1시 15분 버스로 로톤도 호텔에 돌아와 낮잠을 자고 오후 4시 30분 미사를 간다. 새로 지은 지하성당 유리관 안에 모셔진 비오 신부 유해를 등 뒤에 두고 사제가 미사를 집전한다. 로톤도에서 보낸 나흘, 아침에 잠깐 비가 왔다. 예수의 일생을 담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14처 양각 청동부조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십자가의 길은 산 둘레를 따라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져 있다. 신의 나무라 부르는 사이프러스가 하늘을 찌를 듯 뻗어 있는 길은 인적 없는 정적에 싸여 있다. 한 시간 동안 그 길을 걷는다. 멀리 평원 끝으로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난다.

기행 에세이집 『이태리에서 수도원을 순례하다』에서 발췌



고통의 성모께 위로받고, 이웃에 돌봄을 실천하는 남해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보물섬 남해에서 보물을 찾듯 남해성당을 찾아 골목을 돌 때 마주한 예수성심. 성당 정문을 들어서기 전 돌로 꾸민 화단에 자리한 예수님께서 팔 벌려 환영한다. 경사로를 올라 마당에 들어서면 하늘 향해 올리는 기도의 염원을 담은 듯한 성전과 그 중앙에 보이는 고통의 성모. 성전으로 들어가 빛이 모이는 제대에 이르면 성가정의 마리아, 요셉과 아기예수. 다랑이 눈을 만나듯 층층이 오르며 하얀 존재를 거치는 사이 내면이 승화된다.

본당주보 '고통의 성모'

남해성당은 1961년 본당으로 설립되었다. 많은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 지나고, 1989년 갈망하던 성전을 신축했다. 성전을 신축하기까지 시련과 고통은 성모님을 증재자로 한 기도의 다발로 바쳐졌다. 새 성전을 봉헌하면서 남해성당은 본당주보를 '고통의 성모'로 변경했다. 예수님의 주검을 받아 안은 성모님이 피눈물을 삼키시는 피에타, 통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다. 고통의 신비를 알아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듯, 고통으로 승화된 복되신 마리아의 정신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자고 했다. 남해토박이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성향을 지녔다. 마늘농사에도 시금치밭을 일구고, 벼농사, 유자농사 같은 일이 몸에 배어 잠시 쉴 줄을 모른다. 농번기에는 송장도 일어나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외지 사람들이 보면 지독히 몸을 혹사하는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다. 자기희생에 몸을 던지기만 하는 섬사람들의 애환을 숙고한 당시 배기현 콘스탄틴 주임 신부는 '통고의 마리아'를 생각했다.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체험한 어머니기에 힘든 신자들을 연민으로 안아주시리라. 주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큰 고통을 감수하며 함께한 교우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본당의 길에 어머니께 의지하여 남해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60여 년

이원태 클레멘스 주임 신부를 비롯해 박완규 토마스 아퀴나스 사목회장, 김현숙 로사리아 부회장과 문성욱 아니아노 사무장이 자리에 함께했다. 모두들 지난해 본당설립 60주년에도 거리두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매우 아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기념미사와 간단한 선물과 떡을 나누는 조촐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부임한 이원태 신부는 기념책자를 발간하고,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던 지붕누수를 잡는 보수공사를 꼭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붕공사는 교구청 건립과 맞물려 신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교구청건립 후로 미루었다. 60년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어 올 9월경에 발간예정이다. 『본당설립 30년사』를 발간했고, 50년에는 신자들의 글을 모아 문집을 발간한 바가 있다. 이제 60년사를 만들게 되었으니 본당의 역사를 펼쳐 정리하고 엮는 일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박완규 회장은 서울서 남해성당으로 온 지 25년 정도 되었다. 이곳에서 계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했던 때가 많았다. 매미태풍으로 자신의 양어장이 초토화되었지만 성당에서 봉사를 멈추지 않았던 당시, 젊은이들이 매우 열심히 했던 열정을 전했다. 복음화분과장, 총무, 부회장을 거쳐 회장이 되기까지 이 성당의 불박이가 되었다. 김현숙 부회장은 여수에서 남해로 와서 식당, 숙박업 등 개인 사업을 하며 틈나는 대로 성당일 도왔다. 늘 바쁘게 살다가 가게가 정리되어 성당에 맘 편히 나갔으면 하던 소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부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아쉬웠던 신앙생활을 채우고 있다. 문성욱 사무장은 여기서 용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모친도 세례를 받는 큰 수혜를 받았으니 남해성당이 보물단지가 되었다.

그들은 50주년 당시 본당 전체가 2박 3일로 가족캠프를 열었던 때를 기억하며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를 떠올린다. 또 사랑채에서 매주 점심을 만들고 나누었던 코로나 전의 시간들도 그리워한다. 미사에 참례한 여행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기뻐하며 남해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남긴 그때로 돌아가기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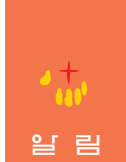
친교의 신비, 돌봄의 공동체

이원태 신부는 코로나가 침투한 메마른 공동체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모로 계획을 세웠다. 가정방문을 계획하고 공동체 모임도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코로나는 핑계를 만들어 안주하게 되고, 마을버스도 중단되니 신자가 줄고 기본적인 친교가 무너지게 되었다. 일상으로의 회복, 친교의 회복을 중요과제로 삼았다. 손편지를 써서 쉬는 교우에게 보내고, 봉성체는 정기적인 날 외에도 오고가는 길에 자주 기회를 갖고자 했다. 격주로 미조공소와 은점공소를 방문하는 날에도 오며가며 최대한 많은 봉성체를 행하여 한 명이라도 더 돌보려고 한다. 레지오 활동도 '돌봄'을 강조한다. '가진 바를 나누자'란 기치 아래 찾아가는 이웃 돌봄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사목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려 했다. 신자가 아니라도 돌봐야 하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렸다. 남해군청을 찾아가서 복지사와 의논하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여 반찬을 나누었다. 그러다 엄청난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는 사람을 구제한 적도 있다. 집수리를 찾아서 해 주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행정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 돕고 돕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해성당은 남해바래길 코스에 들어있는 장소다. 남해공소로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를 지키며 남해지역의 역사를 한몫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성당 뜰을 걷는 읍내바래길 여행자들의 행복을 바라며 브레시디움별로 가꾸는 화단은 더 예쁨을 더한다. '고통의 성모'는 여행자들의 힘든 발걸음도 굽어보며 돌보신다.





기억할 선종 사제
조재영(안드레아) 신부
2016년 4월 15일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4월 12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해정(아녜스)
담당판사: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4월 14일(목)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자비사도회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전 9일 기도' 안내

일정: 시작- 4월 15일(성금요일)
마침- 4월 23일(토요일)

▶ 1일 1선(말과 행동, 기도)
고해성사, 영성체로 전대사 은총 받으세요.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폴로 4월 기도모임

일시: 4월 18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한반도 평화기원 예술제 개최 안내 평화로 가는 길, 평화로 사는 길

일시: 4월 22일(금) 18:30
장소: 창원 상남분수광장
주최: 천주교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기타

효소단식치유피정

일시: 4월 22일(금)~24일(주일)
장소: 청도성모솔숲마을(대구대교구)
주제: "몸은 가볍게, 영은 맑게"
참가비: 20만 원(효소포함)/ 영성 상담 가능
문의: 010·5613·016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접수: 4월 30일(토) 우편접수가능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재속 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일정: 매월 첫 주일 10:00
장소: 부산 장전동 수녀원
대상: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
평신도
문의: 010·2312·2396

재속 프란치스코 지원자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과정: 지원자만 1년 교육 후 입회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
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18~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태양과 바람 나무를 사랑하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젊은이
문의: 010·4557·5134, 010·6711·4013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 청년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4월 22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증 사본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
▶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010-5055-0076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사무장연수



잠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사무장연수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란 주제의 강의와 여인석 베드로 신부(교구 사목국장)의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복음화분과위원연수



복음화분과위원연수가 3월 27일 이동진 안셀모 신부의 강의로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22개 본당 36명의 복음화분과위원장 및 사목위원이 참석하였다.

교구 평협 제27대 출범 및 2022년 첫 상임위원회



교구 평협은 지난 1월 21일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 형제(사파동본당)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제27대 교구 평협 임원을 출범하였다. 그리고 3월 25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2022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 임원 15명은 창원시 진전면 소재 교구청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으로부터 현재까지 공사 현황을 듣고, 신축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첫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계획 발표와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는 "신임 임원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 의욕과 열정에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두 번째 광야 여정(민수 11-21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시나이산자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곧 파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번 여정은 시나이산의 오른쪽으로 펼쳐진 광야를 따라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비록 광야를 거쳐 가야 하는 여정이기는 하지만 여행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곧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나이산에서 아카바만의 입구에 있는 에츠온 게벨 항구(오늘날의 에일랏)까지는 약 192.4Km로 자동차로 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렘을 제외하고 이집트를 떠났던 1세대가 모두 이 광야에서 죽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1세대의 죽음은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탐욕과 교만, 불신앙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 순례 여정을 통하여 신앙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서 죽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두 번째 광야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은 계속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꼽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민수 12,1-16), 정탐꾼을 보낸 일과 관련된 사건(민수 13-14장), 아론의 사제직에 대한 도전(16-17장), 트리바의 물 사건(20장), 그리고 불뱀 이야기(민수 21,4-1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

성의 불신앙과 그에 따라오는 불행한 결과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광야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광야 여정 때와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광야 여정에서나 두 번째 광야 여정에서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태도는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광야 여정 때 하느님께서 백성들이 광야의 거친 삶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진노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정에서는 하느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면 모세는 하느님께 중재기도를 바칩니다. 곧 두 번째 광야 여정에서는 불평과 벌, 모세의 중재라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은 첫 번째 광야 여정과 관련된 탈출 16,1-13과 두 번째 광야 여정에 관한 민수 11,1-23,31-34입니다. 두 본문 모두 메추라기의 기적에 대해 언급하지만, 불평하는 백성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태도는 달라 보입니다. 또 첫 번째 광야 여정과 관련된 탈출 17,1-7과 두 번째 광야 여정에 관한 민수 20,2-13의 본문은 둘 다 트리바의 물 사건을 다룹니다만, 여기에서도 하느님의 태도는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광야 여정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울부짖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는데, 왜 둘째 광야 여정에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일까요? 민수기 11장에 따르면, 만나에 그만 싫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울부짖자 하느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진노하셨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기는 하셨지만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잇새에 있을 때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변하신 것일까요? 성경 곳곳에서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광야 여정이 시나이 계약을 맺기 이전의 일이라면, 두 번째 광야 여정은 계약을 맺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광야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에 따라오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계약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의무는 무엇일까요?